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명태의 맛, 북어의 한

예전에 속초와 거진 항구에 갔었다. 그때는 아직 명태잡이가 한창일 때였다. 시쳇말로 어촌에서 자주 쓰는 문장이 있는데 "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는 거다. 명태가 잘 잡히면 정말 그 동네는 그랬다고 한다. 내가 갔을 때는 40여 년 전. 흥성거리는 분위기였다. 어부들이 가는 술집마다 손님이 가득 차 있었다. 명태는 그 후 남쪽에서 사라져 갔고, 이제는 러시아산에 의존한다. 러시아는 명태 쿼터를 한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 거친 러시아 앞바다 북양어장에 명태 잡는 한국 배가 목숨 걸고 출어한다. 명태 없는 한국인의 식탁은 상상할 수 없는 까닭이다.

명태는 단순히 한 어종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소중한 고기였고, 그만큼 잘 팔렸다. 제사상에 명태(물론 말려서 북어라고 부르는)를 쓰는 집안이 많고, 새로 가게나 회사를 차려도 고사상에 북어를 놓는다. 심지어 무명실타래에 묶어 부적처럼 걸어 둔다. 새로 뽑은 차에 달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도 있다. 북어란 말은 北魚, 즉 북쪽의 고기란 뜻이다. 차가운 물이 도는, 그러니까 우리 심리적으로 북쪽을 의미하는 38도선 언저리 위쪽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이다. 함경도와 강원도가 명태를 많이 잡았다. 명태는 말려서 유통하기 좋다. 게다가 가볍다. 그래서 화전민이 사는 산촌에도 북어가 들어갔다. 보부상이 이고 지고 갖다 팔 수 있는 몇 안 되는 생선이었다. 다른 생선보다 유독 가벼웠고 맛도 좋았다. 마른 멸치가 보급되기 전에 거의 유일하게 북어가 깊은 산촌의 어물이었다. 북어는 화폐를 대신하기도 했다.

명태는 비싼 반찬인 명란도 내주는 고기여서 더 값어치가 있었다. 조선조의 임금도 명란을 사랑해 마지않아서 주요 진상품이었다. 명란은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하사품 노릇도 했고, 양반과 부자들이 주고받는 세찬으로 쓰이기도 했다. 고춧가루와 제피가루 등을 넣어 더 맛있게 하는 방법도 고안되었다. 요새 파는 명란은 양념을 잘한다. 고춧가루는 물론이고, 주정 등을 넣어 맛에 깊이를 넣어 준다.

명란으로 만드는 파생 상품도 많다. 즉석 식품(밀키트)으로 나온 명란 스파게티가 아주 인기 있다고 한다. 명란과 마요네즈를 섞어 튜브처럼 만들어 밥에 올려 짜먹는 제품도 있다. 물론 이런 것은 일제 강점기 한국에서 명란 장사와 제조를 배운 일본인이 패전 후 귀국하여 다시 명란 산업을 시작, 개발한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고춧가루와 소금으로 양념하여 유통되었다. 부자들만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었다. 필자도 어렸을 때 동네 부잣집에서 명란을 처음 얻어먹어 봤을 정도다. 소득이 높아진 요즘은 어지간하면 몇 끼 먹을 명란 구하기는 어렵지 않다.

명태잡이 어부들은 어로에 지치고, 나중에는 고기가 안 잡혀 폐업을 했다. 그리고는 은퇴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역사의 아픔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바로 납북 어부 고문과 간첩 조작 사건이다. 물경 3천여 명의 어부들이 납북되었는데, 귀환한 후 상당수가 현지 경찰, 검찰의 간첩 조작에 휘말렸다. 정식 영장도 없이 시내 여관에 수사실을 차려놓고 고문하여 거짓 자백을 받아 기소했다. 많은 어부들이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쳤고, 긴 형을 살았다.

민주화 시대가 되었고, 광주항쟁을 비롯해 독재 시대에 핍박 받은 많은 인사들이 배상을 받고 명예 회복이 되었다. 그러나 동해안 어부들은 겨우 몇몇 분들이 그 어렵다는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을 받은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실태 조사, 명예 회복, 국가의 공식 사과, 배상의 순서가 남아 있는데 진척이 늦다. 순전히 몇 명 지역의 시민과 양심의 힘으로 시작된 이 '신원 운동'은 이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준비 모임으로 이어졌다. 현지 언론인 엄경선 씨(전 설악신문 기자, 설악닷컴)가 산파역을 맡았다.

납북 피해 어부들은 상당수가 이미 작고했고, 생존한 분들도 연로하고 병약하다. 이들이 한을 풀지 못하고 눈 감기 전에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먹던 맛있는 명태에는 그분들의 한이 서려 있다.

의료칼럼

주하병(注夏病)

박 정 열
상무365한방병원 원장

24절기의 하나인 하지(夏至)는 일 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로, 이날부터 조금씩 더워지면서 여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구의 온난화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평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며,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아지는데 흔히 말하는 "더위 먹었다"고 표현하는 증상들이다.

동의보감에서는 "늦은 봄부터 초여름이 되면 머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을 주하병(注夏病)이라고 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 주하병이 바로 위에서 설명한 더위 먹은 증상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하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기운이 없고 입맛이 떨어지는 것이며 더 심해지면 몸에서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잠도 잘 못 자는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주하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복통, 설사, 장염, 식중독 같은 여름철 주요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하병의 원인은 습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 체온을 식히기 위해 땀을 내야 하는데, 땀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려면 피부로 혈액이 많이 몰리게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장기는 혈액량이 줄어 그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는 되는데, 근육에 혈류량이 줄어들면 몸에 힘이 빠지고 피곤해지고, 소화기관에서는 소화가 잘 안되고, 식욕이 떨어지며, 뇌에 혈류량이 적어지면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심하면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겨 몸에서 열이 나는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주하병은 비위 기능이 약한 체질이거나 평소 체력이 약한 노약자에게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나는데, 이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주하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 더운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하고, 부득이 하게 야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서늘한 그늘에서 자주 쉬어야 한다. 아울러 물을 자주 마셔 주면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고, 식욕이 없더라도 식사를 꼭 하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

덥다고 너무 차가운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은 소화 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실내에 머무를 때도 덥다고 에어컨을 너무 낮은 온도로 설정하지 말고, 가급적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 서늘한 저녁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되며, 또한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술로 인하여 몸에 열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주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주로 기력을 보충해 주는 처방을 많이 사용하는데 보중익기탕이나 생맥산, 삼귀익원탕같은 처방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처방들은 주로 인삼·황기·맥문동·오미자 같은 약재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약재들은 기력을 보충해 주고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주며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여름철 주하병에 많이 쓰이는 생맥산은 원기가 부족하고 식욕 부진에 숨이 차고, 여름철 더위에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없거나, 마른기침을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입안이 마를 때 주로 사용하는 처방인데, 인삼·맥문동·오미자로 구성된 처방으로 가정에서도 쉽게 끓여 마실 수 있다.

기 고

'마을이 미술관' 양림골목 비엔날레

한 희 원
화가
양림골목 비엔날레 집행위원장

새로운 미학으로 현대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준 작가로 요셉 보이스(1921~1986)가 있다. 그는 예술이 오랫동안 예술을 연구하고 기량을 연마한 작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누구나 무한한 예술적 창조자로서 내재된 의식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모든 사람은 예술가'라는 명언에 집약되어 나타난다. 요셉 보이스는 자신의 미적인 철학을 이론적 사고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삶에서 실현했고, 이후 새로운 형태의 현대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올해 두 번째 열린 '양림골목 비엔날레'는 '마을이 미술관'이라는 생각을 마을의 실제적 삶 속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한 행사였다. 더불어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예술을 겪고 느끼며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한 축제였다.

2021년 처음 마을에서 작은 미술 축제를 열어보자고 의견을 나누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벽을 미술을 통해 허물어 보자는 생각이 그 출발이었다.

다행히 양림동은 오랜 시간 동안 시인 김현승·이수복, 소설가 문순태·황석영, 화가 배동신·황영성, 음악가 정율성·정추, TV드라마 작가 조소혜 등 많은 예술가들이 활동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선배들이 떠나간 후에도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마을에 거처를 정해 왕성하게 작업하고 있고 마을의 정신을 이해하고 겪어본 주민, 그리고 그 일을 계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뛰어난 기획자들이 양림마을에 살고 있으니 우연이든 필연이든 미술 축제를 실현할 수 있는 필요 요건이 충족된 셈이었다.

제1회 골목 비엔날레는 마을에 있는 빈 점포와 가게에 작가들 작품을 비치,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떠난 작품들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했다. 어찌 보면 본격적인 미술 축제라기보다는 가볍게 문을 두드리는 행위였다.

그리고 2년 뒤인 2023년 제2회 양림골목 비엔날레는 광주 비엔날레와 맞물려 열리게 되었다. 마을의 예술가, 주민, 기획자는 어떻게 하면 '마을이 미술관'이라는 슬로건에 맞는 미술 축제가 열릴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서 미술 축제를 열기로 했다.

우선 사전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인 재원을 바탕으로 준비된 기획 전시는 이강하 미술관의 이선 학예실장을 전시 감독으로 선임하고 마을에 산재되어있는 빈집과 빈 점포를 찾아내 주인과 면담을 통해 기획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이 공간들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명의 작가에 의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전시작들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양림동 곳곳에 자리한 작가들의 작업실과 갤러리를 둘러볼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 전시와 함께 광주 비엔날레 본 전시 및 파빌리온 네 곳이 양림동에 있는 미술관에서 열리게 되어 양림 골목 비엔날레가 국제적인 미술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길을 걷다 만나는 예술적 사유 양림 골목 비엔날레는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73일간 '기후 위기 시대 생명의 힘'이라는 주제로 열렸고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 비엔날레를 찾은 국제 방문객들은 단순히 비엔날레관에 전시된 작품만 보러 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작품과 함께 광주라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느껴 보고 싶을 것이다. 양림동은 그러한 예술적 추억을 환기시켜주는 마을이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광주 비엔날레 전시 기간 동안 수많은 국내외 미술 관계자와 관람객들이 양림동을 찾았다.

지난 24일에는 집행위원, 작가, 주민, 관객들이 모여 그동안 펼쳐진 일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국제적인 미술 축제 마을로 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의 필요성과 함께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사랑하는 미술 축제로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깜짝 손님으로 2024년 광주 비엔날레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골목길 비엔날레가 관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 후에도 계속 개최되는 지속력이 중요하다.

2024년에도 광주 비엔날레와 함께 양림골목 비엔날레가 열릴 것이다. 마을이 미술관이고 모든 사람이 예술가라는 생각이 양림골목 비엔날레에서 실현되기를 염원해 본다. 내년 행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예술적 사유와 즐거움을 누려 보길 바란다.

社 說

와해 위기 공공의료 광주시 지원 강화해야

고령화 시대 노인 치매·재활 환자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는 광주 지역 공공의료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만성 적자와 경영난으로 인해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위탁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광주시립 정신병원의 누적 적자는 33억 6800만 원,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은 28억 9000만 원,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은 29억 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적자 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정신병원은 2018년 4억 2000만 원에서 지난해 7억 7000만 원으로, 제2요양병원은 같은 기간 2억 35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급증했다.

무엇보다 이들 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19 예비 병상 등을 빼면 90%를 넘을 정도로 알찬 운영을 했음에도 매달 수천 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공공의료 특성상 진료나 치료를 통한 수입은 변동이 없는 반면 인건비와 물가는 매년 상승하면서 고정 비용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제1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과 제2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을 맡았던 우암의료재단과 전남대병원은 재계약을 포기했다. 지난 2월부터 제1요양병원 위탁 운영을 맡은 빛고을의료재단은 인건비 부담이 과중하다며 임금체계 전환에 나섰고, 노조는 이에 반발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시립 제1요양병원은 치매환자, 제2요양병원은 재활환자 전문 병원으로 고령화 시대 가장 기초적인 지역사회 공공의료 기반이다. 이들 병원의 경영난과 의료 공백은 곧바로 시민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광주시는 위탁 경영을 이유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정확한 경영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운영비 등 지원을 강화하고 노사 간 분쟁은 적극 중재해야 한다. 노사 역시 현 상황의 심각성과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여 한발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하청업체 근로자 불법 파견 이젠 바로 잡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 이후 노동 시장 유연화라는 명목 아래 비정규직이 양산됐다. 비정규직이 생기면서 고용 형태도 다양해졌는데 실상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고용 불안과 낮은 급여 등 복지 하락에 시달려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법원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일이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전직 톨게이트 수납원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들이 승소했다. 이들은 위탁 운영 업체와 계약을 맺고 섬에서 한전 소유 발전소 운영과 배전 시설 관리 업무를 하는데, 불법 파견인 만큼 직접 고용하라고 했다.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협력사나 위탁 업체에 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관례에 대해 법원이 불법 하도급으로 판단하고 제동을 건 것이다.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고용 판결은 공공기관에만 그치지 않고 사기업과 프리랜서 노동자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얼마 전 여수국가산단 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가 원청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고, 프리랜서인 AD(방송국 감독 보조)가 KBC광주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도 법원이 계약 관계를 인정했다.

파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은 공공기관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조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법 제1조에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돼 있지만 현실은 고용 불안과 복지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계기로 제정 25년을 맞은 파견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한국이 사랑한 작가

'개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둘 있다. 먼저 '개미 박사'로 불렸던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동물행동학이라는 낯선 학문을 널리 알린 공로자이기도 한 그가 1999년 펴낸 '개미 제국의 역습'은 과학책으로는 드물게 10만 부 넘게 팔렸다.

그리고 또 한명,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다. 1993년 발간된 그의 데뷔작 '개미'(전 3권)는 200만 부가 팔렸고, 이후 30년간 그가 열린책들을 통해 발간한 작품은 '타나토노트' '신' '뇌' 등 30종 57권에 달한다.

한 사람의 작품이 지속적으로 발간되는 건 작가에게나 팬들에게나 행복한 일이다. 모든 작품이 다 만족스러울 수 없기에 평범한 작품에 실망할 때도 있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기다리는 건 또 다른 즐거움이다.

한국인이 유난히 사랑하는 작가들이 있다. 베르베르가 대표적이다. 그의 책은 전 세계에서 3500만 부가 팔렸는데 이 중 1000만 부가량이 한국에서 팔렸다고 하니, 그 인기를 가늠할 수 있다. 작가 역시 책 속에 한국을 연상시키는 인물과 이야기를 넣고, 한국 방문을 할 때면 팬들과의 소통을 즐기며 애정을 숨기지 않는다.

최근 꿀벌이 사라지면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지구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그린 신작 '꿀벌의 예언'(2권)을 들고 방문한 그는 내년 출간될 '왕비의 대각선'은 이순신 장군에게서 영감을 받아 썼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프랑스 작가 기욤 뮈소 역시 국내 소설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구해줘'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등 그의 대표작은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구성과 스토리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그밖에 국내에서 신작 발매 때마다 '선인세'가 화제에 오르곤 하는 무라카미 하루키나 엄청난 속도로 책을 펴내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의 히가시노 게이고 역시 흥행 보증 수표다.

여름휴가 시즌, 재미 있는 소설의 세계로 빠져 보는 것도 좋은 휴가법 중 하나다. 수십 년간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에게는 분명 그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때 그들을 좋아했었던 이라면 신작을, 새롭게 작가를 알아 간다면 대표작으로 북캉스를 즐겨 보시길.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